'2016 유엔마약특별총회'에 참석하고…

인터넷 시대, 마약퇴치를 위한 국제사회 강력한 공동대처가 필요하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대표단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마약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 사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구축한 의료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마약문제는 한 국가만의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사안이며 앞으로 마약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주요 사업인 마약 오남용을 막기 위한 다양한 예방사업 및 중독자 재활프로그램 등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방문단은 각국의 대표단, NGO 및 시민사회 관계자를 만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소개하고 마약문제 현황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으며, 세계마약 정책에 관한 최신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등 뜻 깊은 자리를마련했습니다. UNODC 사무처장은 유엔마약특별총회 기조연설에서 "사람 우선은 건강과 인권에 기반을 둔 균형 잡힌 접근법을 의미하며우리 사회의 안전과 안보를 장려하며, 마약정책은 청소년의 잠재력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양식과 안전한 발달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정책 '현 체제 유지' & '전면적 개혁' 국가 간 의견 차이

이번 유엔마약특별총회에서는 마약정책에 대해 국가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기존의 국제마약통제시스템을 지원하고 유엔마약통제협약을 개정하거나 마약류의 비의료적 사용을 합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옹호하는 진영과 현 체제는 실패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혁"을 주장하는 진영 간에 불꽃 튀는 공방이 있었습니다.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UN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기본정신에 맞추어 마약관련 사형제 폐지, 단순 사용 및 소지에 대한 비범죄화와 유해성 감소(harm reduction)정책의 도입 주장 등 특별총회 준비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른 시민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이제는 2019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합된 행동을 할 때라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유엔마약특별총회가 개최되기 직전 워런 버핏 등 사회 저명인사들은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지난세기의 마약통제체제는 인류의 건강, 안전과 인권에 재난이었음이 입증되었다"며 "범죄화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마약통제정책은 범죄조직을 부유하게 했고정부를 부패하게 만들었으며, 폭력을 유발했고 경제시장을 왜곡했으며 도덕 가치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세기의 비효과적이고 비생산적인 마약정책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위스 대통령을 역임한 드라이푸스 루트(Ruth Dreifuss)는 "유엔마약특별총회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우리의 대책은 현실 가능한 것이지만 세계는 절대로 필요한 정책으로 변화할 준비가되어 있지 않았고 기꺼이 변화시키고자 하지도 않았다."고 역설해 유엔마약특별총회에서 국제마약정책 개혁을 주장하는 진영은 실망감

을 드러냈습니다.

마약 의존자 치료될 수 있다 … '사람을 우선하는 정책'

그러나 이번 유엔특별총회에서는 "형사법제도에만 집중하는 마약정책에서 공중보건접근법을 포용해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강력히 대두됐고 그 결과가 '사람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요약된 것으로 보입니다. WHO 사무처장은 "증거에 따르면 마약사용은 예방될 수 있고 마약사용 장애는 치료될 수 있으며 마약의존은 줄일 수 있고 마약 의존자는 도움을 받아 사회에서 생산적인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공중보건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계마약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국가마약통제실(ONDCP) 실장도 "우리는 약물사용을 예방하고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있다"며 "보호관리법(the Affordable Care Act)에 따라, 더 많은 건강계획이 약물남용장애를 커버해야 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2015년 10월 웨스트버지니아에서의 연설을 인용했습니다. 첫째, 지역사회에서의 약물사용예방하기, 둘째, 건강보호관리에서 조기개입 기회를 찾고, 셋째 약물사용 장애 치료를 건강보호관리 및 회복 지지와 통합 등 미국의 수요감소 측면의 국가마약정책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 소장인 노라 볼코우(Nora Volkow) 박사, WHO 정신건강과 물질남용부장, UNODC 약물예방과 건강부 서장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는 "중독은 뇌질환으로 도덕적인 실패가 아니며 처벌이 아닌 예방이나 치료될 수 있는 것임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밝히면서 예방과 치료재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세계마약문제 통합적 균형 접근 필요

이제는 국제사회가 과거 통제 위주의 전략에서 벗어나, 세계마약문 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이며 균형 있는 접근이 더욱 필요합니다. 마약사범과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인권, 교육, 복지 문제까지 논의 주제를 넓혀나가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바람직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벌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법집행정책은 마약류 범죄를 촉발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뿐입니다. 증거를 기반으로 한 예방 및 치료 재활을 중심으로 '수요억제정책'과 '공급차단정책'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국가마약통제전략을 포괄적으로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중단 없이 추진하는 것만이 세계마약정책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신종마약류 이슈 등 국내 마약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향임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마약위원회가 2016 유엔마약특별총회를 위해 작성하고 채택된 권고 문을 인용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유복하게(prosperity), 또 건강하고 존엄을 유지하며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기 위해 약물남용 없는 사회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세계마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약물남용으로 인한 공중보건, 안전 및 사회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우리의 약속(commitment)을 재확인한다."